

〈일반논문〉

## 고려시기 사냥의 방법과 尙武性

이 병 희 \*

〈목차〉

- I. 序言
- II. 사냥의 방법과 위험성
- III. 騎射 능력과 사냥
- IV. 勇敢·殺生과 사냥
- V. 結語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사냥문화에 보이는 尙武的 성향을 추출하고자 했다. 사냥은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인간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포획하는 행위였는데, 가장 고전적인 사냥의 방법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포유류나 조류 등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이 도구를 사용해 포획했다. 그물을 설치하거나 함정을 파서 사냥하기도 했다. 그리고 매 사냥 역시 크게 성행했다. 사납고 기민한 동물을 포획하는 사냥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사냥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수가 많았다. 가장 흔한 사고는 落馬였다. 위험한 사냥을 능숙하게 하려면 탁월한 활쓰기와 말타기 능력을 보유해야 했다. 또한 상당한 용감성과 민첩성을 갖추어야 했으며, 동물을 주저없이 살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냥에 유능한 이는 실제의 전투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반면, 마음이 여리거나 담력이 약한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사람, 그리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사냥을 즐기지 않았다. 好佛·信佛의 성향을 갖는 사람 역시 사냥에 비판적이었다. 고려시기에는 사냥이 보편적인 활동이었으므로 상무적 성향 역시 상하 모든 계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전쟁을 맞아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상무적 사회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성리학 수용 이후 상무적 분위기는 점차 퇴색해 갔다. 武藝보다는 文藝 혹은 禮治를 중시하게 되면서, 지배층의 문화에서 사냥은 점차 멀어져갔다.

□ 주제어

상무성, 사냥, 야생동물, 활과 화살, 매 사냥, 활쏘기, 말타기, 용감성, 불교, 상무적 사회

---

## I. 序言

고려사회는 武勇을 숭상하는 尙武的인 사회였다. 많은 전쟁을 맞아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상무적 사회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고려사회의 상무적 성향은 이미 조선중기 許筠도 지적했고,<sup>1)</sup> 일제시기 사회경제사가였던 白南雲氏도 시사한 바 있다.<sup>2)</sup> 고려사회에서 상무적 분위기가 강했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모습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사냥이다.

사냥은 주지하듯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인간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

---

1) 許筠, 『惺所覆瓿藁』 권11, 兵論.

2)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 283~297쪽, 353~356쪽, 450~452쪽, 645~659쪽, 842~844쪽 참조.

해 포획하는 행위였다. 매우 사납고 기민한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심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武藝와 독특한 기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많은 사람이 사냥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이 상무적 환경에 친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려시기 사냥에 대해서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sup> 나아가 사냥이 함축하고 있는 상무적 속성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사냥문화에 보이는 상무적 성향을 추출하고자 한다. 고려시기에는 사냥이 매우 보편적인 활동이었으므로 상무적 성향 역시 상하 모든 계층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냥의 방법을 검토하고, 그 사냥에 함축된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를 확인할 것이다. 騎射 능력과 사냥활동이 깊은 연관성을 가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능숙하게 사냥하기 위해서는 용감성을 갖추어야 하고, 살생을 기피하지 않아야 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런 측면도 부각시키고자 한다. 사냥이 일상 문화였던 고려사회에서 기사 능력과 용감성으로 상징되는 상무 성향<sup>4)</sup> 두드러졌음을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사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논지가 충실하도록 하겠다.

## II. 사냥의 방법과 위험성

고려시기 사냥의 방법은 다양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하기도 하고, 매를

3) 고려시기에 사냥이 중요한 生業이었음은 이병희, 「고려시기 사냥의 성행(盛行)과 대책」, 『한국중세사연구』 67, 한국중세사학회, 2021 참조.

4) 상무 성향에는 무엇보다도 말타기와 활쏘기 능력 등 武의 소양이 포함되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용감성과 민첩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활용하기도 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동물을 몰아서 사냥하는 방법도 있었다.<sup>5)</sup> 하나의 사냥 행위에는 다양한 방법이 혼용되는 수가 많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사냥은 위험한 행위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냥 방법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비교적 먼 거리에서 사냥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해 포획하는 야생동물은 매우 다양했다. 각종 포유류가 잡히는 것이 확인되고 몇몇 조류가 포획되는 것이 찾아진다.

활과 화살을 갖춰 사냥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우왕에게서 볼 수 있다. 우왕은 직접 활과 화살을 차고 팔에 매를 얹고 사냥을 나갔다고 하며,<sup>6)</sup> 또 활과 화살로 무장을 하고 사냥을 나섰다고 한다.<sup>7)</sup> 활과 화살로 무장하는 것은 모든 사냥의 기본이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해 사냥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사슴이었다. 사슴을 활로 쏘서 잡는 일은 매우 흔했다. 신라 말기 徐神逸이 화살을 맞아 도망온 사슴을 사냥꾼 몰래 숨겨 준 일이 있다.<sup>8)</sup> 李宜風은 사냥을 나간 왕을 따라 갔다가 사슴이 왕의 행차 앞으로 달려가자 화살로 사슴을 쏘아 넘어뜨렸다.<sup>9)</sup> 우왕이 古新平縣으로 가서 화살로 사슴을 쏘다가 사고를 겪은 일이 있다.<sup>10)</sup> 활과 화살로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다.

5) 사냥의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서는 김광언, 『韓·日·東시베리아의 사냥』, 민속원, 2007이 크게 참고된다. 다만 통시대적으로 접근하여 역사 시기별 특징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6)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6년 8월; 『高麗史節要』권31, 辛禡 6년 8월.

7) 『高麗史』권135, 列傳48, 辛禡 9년 2월.

8) 『高麗史』권94, 列傳7, 徐熙附 訥; 李齊賢, 『櫟翁稗說』前集2, 徐神逸; 『新增東國輿地勝覽』권8, 京畿, 利川都護府, 人物, 徐弼.

9)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崔安道附 李宜風;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1년 9월.

10) 『高麗史』권135, 列傳48, 辛禡 11년 3월.

普覺國師 混脩의 부친이 사냥을 갔다가 어미 사슴 한 마리를 보고 활을 쏘려다 중지한 일이 있다. 사슴 새끼가 어미를 따라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1)</sup> 李成桂도 長湍都護府 華藏山에서 활로 사슴을 쏘아 잡았다.<sup>12)</sup>

노루를 화살로 쏘 포획하는 경우는 이성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성계가 함경도 洪原縣 照浦山에서 세 마리의 노루를 만나 먼저 한 마리를 쏘아 죽이고 뒤쫓아 가서 한 화살로 달아난 두 마리를 겹쳐 꿰뚫어 잡았다.<sup>13)</sup> 토끼 역시 화살로 사냥하는 경우가 보인다. 李穡이 평원의 교활한 토끼가 화살에 맞았음을 읊고 있다.<sup>14)</sup>

멧돼지의 사냥에서도 활이 중요했다. 우왕이 맞닥뜨린 멧돼지를 潘福海가 화살 한 발로 쏘아 죽였다.<sup>15)</sup> 활과 화살을 사용해 잡은 동물로 사슴과 멧돼지를 동시에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초 成倪의 외삼촌 安公은 활쏘기를 잘해 사슴과 멧돼지를 맞히지 못함이 없었다고 한다.<sup>16)</sup>

활과 화살로 사냥할 수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호랑이었다. 맹수인 호랑이는 사람과 가축에 큰 해를 끼치는 동물이었다. 그것을 사냥하는 것은 담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태조 1년(918) 도성의 흑창 담 안으로 들어온 호랑이를 활을 쏘아 잡았다.<sup>17)</sup> 전주 경내에 호랑이 소동이 있었는데, 전주 사록 겸 장서기였던 朴元桂가 말을 타

11) 權近, 『陽村集』권37,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 并序」;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朝鮮篇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9, 「忠州靑龍寺普覺國師幻庵定慧圓融塔碑」.

12) 『新增東國輿地勝覽』권12, 京畿, 長湍都護府, 山川, 華藏山.

13) 『新增東國輿地勝覽』권49, 咸鏡道, 洪原縣, 古跡, 照浦山.

14) 李穡, 『牧隱詩藁』권35, 「西村金龍內官 以酒食來」.

15)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潘福海; 『高麗史節要』권32, 辛福 12년 10월; 李穡, 『牧隱文藁』권11, 「賜贊成事潘卜海教書」; 鄭夢周, 『圃隱集』권2, 「賀潘二相」; 權近, 『陽村集』권4, 「賀潘二相賜姓詩」.

16) 成倪, 『慵齋叢話』권3, 我外舅安公

17) 『高麗史』권54, 志8, 五行2, 金, 毛虫之孽, 太祖 1년 8월 戊辰.

고 좁은 지역에서 하나의 화살로 명중시켜 호랑이를 죽였다.<sup>18)</sup> 우왕 1년(1375) 이성계도 활로 호랑이를 잡아 바친 일이 있으며,<sup>19)</sup> 또 우왕 4년에도 이성계는 개경 도성에 들어와 인명 피해를 준 호랑이를 활로 쏘 죽였다.<sup>20)</sup> 위험한 맹수도 활과 화살로 사살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1)</sup>

포유류 동물만이 아니라 조류도 화살로 잡을 수 있었다. 화살로 꿩을 맞힌다는 표현에서<sup>22)</sup> 꿩 역시 화살로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권근의 노비가 산에 가서 화살로 꿩을 사냥한 사례도 있었다.<sup>23)</sup> 기러기도 활로 쏘 잡았다. “놀란 기러기는 화살을 피해 힘껏 나네”라는 구절에서<sup>24)</sup>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삼국시기 申崇謙은 공중에 떠도는 기러기를 화살로 맞혔다.<sup>25)</sup> 꿩과 기러기를 동시에 언급한 예도 보인다. 조선초 활을 잘 쓰는 李石貞이 사냥을 나가면 꿩이나 기러기를 화살 수대로 잡아왔다.<sup>26)</sup> 그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발휘해 꿩과 기러기를 잡은 것이다. 고니를 화살로 잡은 일도 있다. 윤수가 연못에서 놓고 있던 고니를 활로 쏘서 포획했다.<sup>27)</sup> 꿩, 기러기, 고니를 화살을 쏘 잡은 것이다.

활과 화살은 당시 사냥을 나간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장비였다. 거의 모든 동물을 이 도구로 사냥할 수 있었다. 동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18) 『新增東國輿地勝覽』권33, 全羅道, 全州府, 名宦, 朴元桂.

19) 『高麗史』권133, 列傳46, 辛禱 1년 10월.

20) 『高麗史』권133, 列傳46, 辛禱 4년 8월.

21) 주로 자료에 보이는 내용은 人家에 출몰한 호랑이 퇴치이다. 호랑이 포획을 목적으로 직접 사냥에 나서는 수도 많았는데, 그것은 虎皮의 조달과 관련한 것이다. 이 때에도 활과 화살을 사용해 호랑이를 포획했을 것이다.

22) 徐居正, 『四佳詩集』권30, 「送洪元戎 伯涓 赴幕」.

23) 權近, 『陽村集』권3, 「奴好珍射雉爲具 以詩誌之」.

24) 閔思平, 『及菴詩集』권3, 「與門生出游東郊」.

25) 『新增東國輿地勝覽』권41, 黃海道, 平山都護府, 人物, 申崇謙.

26) 成倪, 『慵齋叢話』권4, 裴珣文·李石貞.

27)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尹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다소 떨어져 있어도 명중률이 높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방법은 사냥꾼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사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매 사냥이 매우 성행했다. 매를 활용해 여러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매 사냥을 할 때는 대개 개를 데리고 갔다. 개가 대상 동물을 찾아내 달아나게 하거나 하늘을 날도록 해 매가 잡을 수 있게 도왔다. 또 매가 사냥에 성공했을 경우 포획한 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鷹犬'이란 표현이<sup>28)</sup> 자주 보이는 것이다. 물론 포획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꿩, 토끼, 여우가 중심이었다. 그 중에서도 꿩과 토끼가 대표적이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야생동물은 포획할 수 없었다.

매와 개가 사냥에서 동반자 관계에 있었음은 여러 자료에 보인다. 尹秀가 사냥용 매와 개로 왕의 환심을 얻었다는 것,<sup>29)</sup> 兵馬都統使 崔瑩이 매와 개를 바쳐 우왕을 사냥으로 이끌었다는 것에서<sup>30)</sup> 확인된다. 郭預의 시에서 “한 마리 매는 빠르기 화살같고, … 꿩은 곤경에 빠졌는데 또 개를 만났고”라고 했다.<sup>31)</sup> 매와 개가 함께 사냥에서 활약한 것이다. 매 사냥에는 대부분 개를 데리고 가서 활용했다.

매를 활용해 사냥하는 사례는 다수 찾아진다. 閔瑛은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하는 일을 즐겼다고 한다.<sup>32)</sup> 盧卓儒란 인물도 밖에 나가면 매를

28)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尹秀;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李貞附李珣; 李穡, 『牧隱詩藁』권20, 「是日正午 日光穿漏 西南始晴 行幸之際 鷹犬效才 天顏怡懌 蓋可想也 臣穡以病留司 又不能出門 獨坐有感」; 李穡, 『牧隱詩藁』권30, 「伏值駕出西郊 以病不能從 吟成一首」.

29) 『高麗史節要』권19, 元宗 15년 9월.

30) 『高麗史』권137, 列傳50, 辛昌 즉위년 7월.

31) 郭預, 「壽康宮觀獵」, 『東文選』권9; 『新增東國輿地勝覽』권13, 京畿, 豐德郡, 古跡, 壽康宮.

날리고 사냥개를 부려 가는 곳마다 自適했다고 했다.<sup>33)</sup> 매 사냥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선왕 3년(1311) 宰樞 이하가 祈恩을 구실로 江外로 나가 사냥을 하면서 매를 풀어놓는 것을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여기는 자는 罷職할 것이라라고 傳旨했다.<sup>34)</sup> 재추 이하의 관료가 매 사냥함을 알 수 있다. 조선초 매를 팔뚝에 엮고 누런 개를 끌며 어린 중수십 명과 함께 사냥에 나서는 예도 찾아진다.<sup>35)</sup>

국왕이 매 사냥하는 예도 매우 흔했다. 충렬왕, 충혜왕, 우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렬왕 2년(1276) 국왕이 덕수현의 馬堤山에서 사냥할 때 매와 새매를 다루며 중흥으로 달렸다.<sup>36)</sup> 충렬왕 9년 국왕이 승천부에서 매를 풀어 사냥했다.<sup>37)</sup> 충혜왕 즉위년(1330) 국왕이 卞則門 밖에서 무릇 6일 동안 매를 풀어 사냥했다.<sup>38)</sup> 충혜왕 후4년(1343) 2월 국왕이 동교에서 매 사냥을 했으며,<sup>39)</sup> 같은 해 6월 靑郊에서 매 사냥을 했다.<sup>40)</sup>

우왕도 매 사냥을 몹시 즐겼다. 우왕 2년 국왕이 처음으로 말 달리고 매 사냥하는 것을 익혔다.<sup>41)</sup> 우왕 6년 국왕이 도성 남쪽에서 5일 동안 사냥을 했는데, 직접 사냥도구를 지참하고 팔에 매를 얹히고 나갔다.<sup>42)</sup> 우왕 9년 3월 팔에 매를 얹히고 교외에서 사냥했으며,<sup>43)</sup> 같은 해 10월 국

32)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 出版部, 2012, 「閔瑛墓誌銘(1152년)」.

33)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 出版部, 2012, 「盧卓儒墓誌銘(1191년)」.

34) 『高麗史』권84, 志84, 刑法1, 職制, 忠宣王 3년 6월.

35) 成倪, 『慵齋叢話』권3, 我外舅安公

36) 『高麗史』권28, 世家28, 忠烈王 2년 8월 甲戌.

37) 『高麗史』권29, 世家29, 忠烈王 9년 2월 丁未.

38) 『高麗史』권36, 世家36, 忠惠王 즉위년 2월 癸巳;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7년 2월.

39) 『高麗史』권36, 世家36, 忠惠王 후4년 2월 己酉.

40) 『高麗史』권36, 世家36, 忠惠王 후4년 6월 丁未.

41) 『高麗史』권133, 列傳46, 辛禡 2년 9월; 『高麗史節要』권30, 辛禡 2년 9월.

42)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6년 8월; 『高麗史節要』권31, 辛禡 6년 8월.

43) 『高麗史』권135, 列傳48, 辛禡 9년 3월.



왕이 몇 명의 騎士를 거느리고 橐駝橋 부근에서 매 사냥을 했다.<sup>44)</sup> 우왕 11년 2월 국왕이 해주에서 매 사냥을 할 때 崔瑩·李成琳 등이 따랐는데, 국왕이 팔에 매를 올려놓고 新月·鳳加伊와 함께 말고삐를 잡고 달렸다.<sup>45)</sup> 우왕이 자주 매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 사냥을 할 때 포획되는 야생동물의 대표는 꿩이었다. 꿩이 매를 피해 도망하다 개를 만난다는 언급이 보인다.<sup>46)</sup> 꿩을 대상으로 매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색도 그런 내용을 시에서 언급하고 있다. “깍지 벗은 매는 넓은 하늘에 꿩을 치려 하고”,<sup>47)</sup> “맑고 찬 가을 하늘엔 매가 꿩을 덮치려 하고”라는 언급에서<sup>48)</sup> 매가 꿩을 잡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가 토끼를 사냥하기도 했다. 金堦가 작성한 매를 진헌하는 進奉表에서, 매는 훈련을 거쳐서 숲속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sup>49)</sup> 매 사냥으로 꿩과 토끼를 둘다 잡는다는 내용도 보인다. 삼국시기 金后稷이 眞平王에게 올린 글에 매와 개를 활용해 꿩이나 토끼를 쫓고 있다는 언급이 보인다.<sup>50)</sup> 매 사냥을 통해 여우도 잡을 수 있었다.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 나가면 여우와 토끼를 쫓아 달린다고 했다.<sup>51)</sup> 개가 쫓고 매가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꿩, 토끼와 여우를 모두 매 사냥으로 포획할 수 있었다. 매 사냥은 위험성이 덜하기는 하지만 상황 전개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했다. 매가 꿩을 잡았을 때는 빨리 접근해야 했다.

44) 『高麗史』권135, 列傳48, 辛禡 9년 10월 癸未.

45) 『高麗史』권135, 列傳48, 辛禡 11년 2월 庚申.

46) 郭預, 「壽康宮觀獵」, 『東文選』권9; 『新增東國輿地勝覽』권13, 京畿, 豐德郡, 古跡, 壽康宮.

47) 李穡, 『牧隱詩藁』권7, 「晨興」.

48) 李穡, 『牧隱詩藁』권9, 「演雅 三首」.

49) 金堦, 「進奉表」, 『東文選』권44.

50) 金后稷, 「上眞平王書」, 『東文選』권52.

51) 金克己, 「田家四時」, 『東文選』권4.

매 사냥 이외에도 사냥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함정을 파서 잡기도 하고, 그물을 설치해 포획하기도 했으며, 불을 지름으로써 동물을 몰아 잡기도 했다. 그리고 다수의 물이꾼을 동원한 사냥도 보인다. 겨울철 눈 내린 뒤에 사냥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컸다. 창을 활용해 사냥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데,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물로부터 危害를 당할 소지가 컸다. 그래서인지 창으로 사냥하는 예가 없지 않았지만 기록상으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사냥에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냥하는 아이가 그물을 찢다는 표현에서<sup>52)</sup> 알 수 있다. 우왕 6년 장대를 들고 참새를 잡아 불에 구워 먹었다는 사실이 보이는데,<sup>53)</sup> 이때 장대를 이용해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참새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색의 시에서 “노루 보고 그물 진다는 속담도 있거니와”라는 구절이<sup>54)</sup> 보인다. 노루를 잡기 위해 그물을 지고 간다는 의미이다. 사향 노루에게 그물 친 곳을 함부로 가지 말라는 표현도 보인다.<sup>55)</sup> 토끼를 잡으려면 그물을 가져야 한다는 표현이<sup>56)</sup> 보이는 데서 그물을 사용해 토끼를 포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물로 잡는 야생동물은 새, 사슴, 노루, 토끼가 확인된다. 그물을 사용하는 사냥은 위험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함정 사냥은 동물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위험 부담이 적었다. 함정을 사용하는 것은 맹수를 사냥하는 데 편리한 사냥법이였다. 이 규보가 지은 시에서 함정 사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함정을 일찍 깊이

52) 『新增東國輿地勝覽』권41, 黃海道, 平山都護府, 驛院, 寶山驛.

53)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禰 6년 10월.

54) 李穡, 『牧隱詩藁』권4, 「解嘲吟」.

55) 徐居正, 『四佳詩集』권46, 「花樹走獸圖 十首」.

56) 釋宓菴, 「丹本大藏經讀疏」, 『東文選』권112.

파지 않아서, 승냥이·호랑이가 각처에 꼭 찻으니”라는 표현에서<sup>57)</sup> 함정을 깊게 파서 승냥이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王冲이 보성군 수령이었을 때 호랑이 떼가 경내에 들어와 사람과 동물을 해치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는데, 함정을 설치해 다 잡았다고 한다.<sup>58)</sup> 맹수가 다니는 길목에 깊은 함정을 설치해 포획하는 방식이었다. 함정에 빠진 동물은 최종적으로 활이나 창을 사용해 사살했을 것이다.

불을 질러 동물을 달아나게 함으로써 사냥하는 방법도 있었다. 숨어 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데 유익했다.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이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충렬왕 8년 들판에 불을 질러 사냥한 것이 보이고.<sup>59)</sup> 우왕 7년 우왕이 성 동쪽 교외에서 불을 놓아 사냥한 예도 있다.<sup>60)</sup> 남쪽 교외에서의 火獵은 이미 관례로 굳어진 일이라는 이색의 언급이 보인다.<sup>61)</sup> 권근은 봄 사냥에서 들판에 사냥 불길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다.<sup>62)</sup> 불을 질러 사냥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불을 질러 사냥할 때 포획되는 동물은 다양했다. 사냥 불이 치솟고 아울러 화살을 쏘니, 멧돼지가 뛰다 죽고, 노루와 여우 또한 죽고 있다고 한다.<sup>63)</sup> 언덕 머리 무성한 잡초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을 달리면서 여우와 토끼를 잡는다는 표현도 보인다.<sup>64)</sup> 이것은 조선전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고려시기에도 비슷했을 것이다. 불을 질러 사냥했을 때 포획되는

5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全集』권8, 「感興」.

58)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 出版部, 2012, 「王冲墓誌銘(1159년)」.

59) 『高麗史』권29, 世家29, 忠烈王 8년 9월 壬午.

60)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7년 3월; 『高麗史節要』권31, 辛禡 7년 3월.

61) 李穡, 『牧隱詩藁』권28, 「病中末由扈駕觀獵 吟成短律 馳一騎奉呈李二相馬前 幸與廉政堂竝轡一覽 如蒙分惠所餘 亦所不辭也」.

62) 權近, 『陽村集』권3, 「城東迎駕 次尹紹宗待制詔」.

63) 李胄, 「觀郡伯獵獸」, 『續東文選』권5.

64) 徐居正, 『四佳詩集』권40, 「題村居八詠圖」.

동물로 확인되는 것은 멧돼지, 노루, 여우, 토끼 등이다. 사슴이나 호랑이도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불을 질러 사냥하는 방식은 도망치는 동물을 활을 사용하거나 그물로 포획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냥꾼은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또 이렇게 불을 지르면 수확이 끝나지 않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불탄 지역의 산림이 훼손되어 생태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기도 했다. 이런 사냥은 다수의 사람이 함께 진행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몰이꾼을 동원한 사냥은 매우 흔했다. 일정한 공간으로 몰고, 그곳으로 몰려든 동물을 활로 쏘거나 그물을 설치해 잡을 수 있었다. 지방관이나 군 지휘관이 휘하 사람들을 동원해 사냥하는 경우 대체로 다수가 참여하는 몰이 사냥이었을 것이다. 남산에 큰 호랑이가 자주 나와 사람을 해치자, 李奎報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사로 잡은 일이 있다.<sup>65)</sup> 아마 다수의 군사를 동원해 잡았을 것이다.

黃州牧 수령 金俊瑠가 정사를 등보지 않고 용사들을 모집하여 항상 사냥을 일삼았다고 한다.<sup>66)</sup> 용사들을 모아 사냥하는 경우, 다수를 활용한 몰이 사냥일 가능성이 크다. 원종대에 義州副使 金孝巨는 사냥하러 들로 나갔는데<sup>67)</sup> 개인 차원에서 사냥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을 동원한 사냥일 가능성도 있다. 騎士들이 장군을 옹위하고서 사슴이 숲은 산림 속에 달려 들어가 잡음을 읊은 시가 있다.<sup>68)</sup> 다수가 무리지어 사냥하고 있는 것이다. 慶復興이 崔瑩과 함께 사병을 거느리고 동교에서 크게 사냥한 일이 있는데,<sup>69)</sup> 이 경우 사병을 몰이꾼으로 사역시켰을 것이다.

65)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全集』권9, 「自貽雜言 八首」.

66) 『高麗史』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高麗史節要』권14, 神宗 2년 8월.

67) 『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崔坦; 『高麗史節要』권18, 元宗 10년 10월.

68) 李穡, 『牧隱詩藁』권20, 「判三司與諸將擊獸以助餞宴」.

69) 『高麗史』권111, 列傳24, 慶復興.

공민왕 12년(1363) 각 처의 방어 군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하고 있음이 보인다. 때를 살피지 않고 사냥해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짐승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sup>70)</sup> 군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하는 데서 몰이 사냥임을 알 수 있다.

국왕이 사냥에 나선 경우 몰이 사냥인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西海道에서 사냥할 때 말을 타고 사냥에 나선 자가 1,500명이나 되었다.<sup>71)</sup> 충숙왕이 한양에서 사냥할 때 사냥 기병 300여 명이 따라갔다.<sup>72)</sup> 다수를 동원해 일정한 공간으로 야생동물을 몰아 활과 화살을 사용해 포획했을 것이다. 우왕이 성 동쪽에서 사냥하고 또 伯顏 郊에서 사냥했다. 이때 최영 등이 동물을 몰아서 왕 앞쪽에 놓으면 우왕이 활을 쏘 명중시켰다.<sup>73)</sup> 몰이 사냥과 활 사냥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국왕이 사냥을 하면 많은 경우 다수의 騎兵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충숙왕의 사냥에 기병이 300여 명 수행했다.<sup>74)</sup> 또 “일만 기병 벽옥 말발굽 바람을 일으키리, 매와 개는 무리 지어 국왕의 깃발 뒤따르고”라는 표현에서도<sup>75)</sup> 읽을 수 있다. 국왕이 사냥에 나서는 경우 다수의 기병을 활용한 몰이 사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다수의 몰이꾼을 동원한 사냥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 소리를 지르며 몰면 동물은 일정한 방향으로 달아날 것이고, 중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활을 쏘서 잡았을 것이다. 일부는 그물을 활용해 포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냥법은 국왕이나 군 지휘관, 지방

70) 『高麗史』권84, 志38, 刑法1, 職制, 恭愍王 12년 5월.

71) 『高麗史』권30, 世家30, 忠烈王 13년 4월 癸酉;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 13년 4월 癸酉.

72) 『高麗史』권34, 世家34, 忠肅王 4년 2월 辛酉.

73)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禰 6년 3월; 『高麗史節要』권31, 辛禰 6년 3월.

74) 『高麗史』권34, 世家34, 忠肅王 4년 2월 辛酉.

75) 李穡, 『牧隱詩藁』권30, 「伏值駕出西郊 以病不能從 吟成一首」.

수령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물이 사냥을 하면 다수의 동물을 일거에 포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물이 사냥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밖에도 도끼로 동물을 때려 잡은 예도 보인다. 崔尙翥가 사냥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자 그 아들 崔婁伯이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추적해 찾아내 꾸짖은 다음 도끼로 내리쳐 죽였다.<sup>76)</sup> 매우 특이한 사례이지만 도끼로 호랑이를 사냥한 것이다. 그밖에도 유인책을 써서 동물을 잡는 수도 많았을 것이다. 숫꿩의 경우는 암꿩으로 유혹하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7)</sup> 미끼를 사용해 덫에 걸리게 하는 일도 흔했을 것이다.

눈이 내린 것을 이용해 사냥하는 방법도 있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야생동물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를 활용해 사냥하면 성과가 컸다. 이색은 자신의 詩에서 눈이 그쳐 사방이 새 하얗게 되었을 때 사냥개를 끌고 몇 사람이 말을 타고서 교활한 토끼를 쫓는다고 언급했다.<sup>78)</sup> 눈 온 뒤에 말을 타고 개를 끌고 토끼 사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생동물과 조우하는 사냥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달아나는 동물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맹수와 맞닥뜨릴 경우 危害를 당할 소지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었다. 落馬 사고가 가장 흔했다. 부주의로 낙마하기도 하고, 동물의 돌진을 피하다가 낙마하기도 했다. 물론 맹수가 직접 공격해 오는 수도 있었다.

야생동물이 돌진해 옴은 사냥에서 늘상 있을 수 있었다. 일찍이 충숙왕이 사냥하고 있던 중에 사슴이 국왕의 수레 앞으로 뛰어 오르는 돌발 상

76) 『高麗史』권121, 列傳34, 孝友, 崔婁伯; 『高麗史節要』권11, 毅宗 9년 8월; 『新增東國輿地勝覽』권9, 京畿, 水原都護府, 孝子, 崔婁伯.

77) 姜希孟, 「訓子五說 并序」, 『續東文選』권17.

78) 李穡, 『牧隱詩藁』권35, 「望獵騎」.

황이 발생했다.<sup>79)</sup> 사냥하는 경우 이처럼 동물이 뛰어 오르는 긴급 상황을 만나는 수가 매우 많았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동물의 출몰은 사고로 연결 될 소지가 컸다.

낙마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였다. 우왕이 용수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다.<sup>80)</sup> 낙마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술에 취해 말을 타는 경우는 그럴 위험이 컸을 것이다. 사냥을 하는 경우 도중에 음주하는 수가 많고 그렇게 되면 낙마의 위험성이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우왕이 사냥하면서 화살로 사슴을 쏘던 중 말에서 떨어져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일도 있다.<sup>81)</sup> 국왕이 말에서 떨어져 기절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사냥에 집중하다 보면 낙마하는 수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낙마로 큰 위험에 처한 사건은 우왕 12년 발생했다. 국왕이 옹진에 이르러 멧돼지를 쏘자 활살을 맞은 멧돼지가 독기를 품고 돌진해 우왕이 탄 말을 들이받았다. 이에 우왕이 놀라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sup>82)</sup>

사냥에 능숙한 潘福海란 인물도 낙마한 일이 있다. 일찍이 우왕을 따라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지자 우왕은 자신이 타고 있는 말을 그에게 주었다.<sup>83)</sup> 사냥에 참여한 이들이 낙마 사고를 당하는 예는 꽤 흔했다. 우왕이 사냥하면서 여러 내시들을 거느리고 東池에서 말을 씻기고는 그들과 함께 말을 달렸는데, 金元吉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sup>84)</sup> 유능한 무장 이성계도 낙마한 일이 있었다. 공양왕 4년(1392) 3월 이성계가 海州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병세가 심각했다.<sup>85)</sup> 이성계와 같은 노련

79)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1년 9월.

80)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7년 6월.

81) 『高麗史』권135, 列傳48, 辛禡 11년 3월.

82)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潘福海; 『高麗史節要』권32, 辛禡 12년 10월.

83)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潘福海.

84) 『高麗史節要』권32, 辛禡 10년 2월.

85) 『高麗史』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戊戌; 『高麗史』권117, 列傳30, 鄭夢周.

한 무장도 사냥하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사냥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말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출몰에 놀라 낙마하기도 했다. 동물이 공격해 와서 말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었다. 낙마가 큰 부상으로 이어져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金暉은 말에서 떨어져 병을 얻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직 생활을 할 수 없었다.<sup>86)</sup> 낙마가 큰 상해로 이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생동물이 직접 공격해 오는 수도 있었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동물은 호랑이었다. 호랑이의 출현은 공포였고, 그 공격으로 해를 입는 수도 있었다. 몇몇 예를 들면, 원종 6년(1265) 호랑이가 대궐 동문 밖까지 들어와 사람을 물어 죽였으며,<sup>87)</sup> 충렬왕 9년 호랑이가 성 안에 들어와 사람을 물었다.<sup>88)</sup> 충혜왕 후3년 호랑이가 성 안에 들어와 사람을 물었고,<sup>89)</sup> 또 우왕 4년 호랑이가 개경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과 가축에 해를 끼쳤다.<sup>90)</sup> 불의에 호랑이가 도성 내에 들어와 해를 끼친 것이다. 사냥 중에 호랑이를 만나도 포획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사냥할 때 호랑이의 출현은 모두를 긴장시켰다. 숙종 7년(1102) 국왕이 牛陀川 들판에 행차했다가 호랑이가 뛰어나온 일이 있다. 牽韃校尉 宋宗紹가 그것을 때려 죽였으므로 그에게 옷 한 벌을 하사했다.<sup>91)</sup> 사냥할 때 호랑이의 출현은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때 호랑이를 잡은 인물에게는 공을 인정해 상을 수여한 것이다.

원종 14년 원에서 호랑이 사냥꾼 9명을 파견해 개 100마리를 끌고 왔

86)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 出版部, 2012, 「金暉墓誌銘(1305년)」.

87) 『高麗史』권54, 志8, 五行2, 金, 毛虫之擊, 元宗 6년 7월 壬戌.

88) 『高麗史』권54, 志8, 五行2, 金, 毛虫之擊, 忠烈王 9년 4월 庚戌.

89) 『高麗史』권54, 志8, 五行2, 金, 毛虫之擊, 忠惠王 후3년 3월 丁酉.

90) 『高麗史』권54, 志8, 五行2, 金, 毛虫之擊, 辛禡 4년 8월 丙午.

91) 『高麗史』권11, 世家11, 肅宗 7년 11월 壬午.



는데, 개가 호랑이를 쫓았으나 개는 많이 죽고 호랑이는 잡지 못했다.<sup>92)</sup> 사냥개를 다수 동원해 호랑이 사냥에 나섰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호랑이 사냥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냥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동료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는 수도 없지 않았다. 달아나는 동물을 추적하면서 활을 쏘다 보면 잘못해 동료를 맞히는 수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사냥은 이처럼 사고와 危害를 동반한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산야에서 달아나는 야생동물을 추격해 쫓아가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치는 일도 있고 장애물을 만나는 수도 있었으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사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단한 일이기도 했다.<sup>93)</sup> 아무나 능숙하게 사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담력도 갖추어야 했다.

### Ⅲ. 騎射 능력과 사냥

사냥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것은 騎射 혹은 射御로 표현되었다. 말타기 능력과 활쏘기 능력이 출중해야 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사냥에서 솜씨를 발휘할 수 없었

92) 『高麗史』권27, 世家27, 元宗 14년 12월 辛酉.

93) 유희적 성격을 띤 사냥이나 취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냥은 위험에 덜 노출되었을 것이지만, 생업의 일환으로 또 貢物의 마련을 위해 사냥하는 경우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호랑이·표범·곰 등의 맹수를 사냥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았을 것이며, 반면 꿩이나 토끼·노루·사슴 등의 사냥은 덜 위험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야생동물의 공격에 따른 위험은 적었지만 사냥 행위 자체가 긴장감 속에서 위험하게 전개되는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다. 말타기와 활쏘기 가운데 후자가 사냥에서 더욱 중요했다.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중한 활 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다.

사냥을 잘 하는 이들은 대체로 善射御, 善騎射, 好射御했다(부록 참조).<sup>94)</sup> 평안도 의주의 풍속을 언급하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 하고 사냥을 좋아한다고 했다.<sup>95)</sup> 능숙한 활쏘기와 말타기는 사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사 능력을 갖춰야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사냥하는 이들이 말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수가 많았다. 사냥에 騎士가 나섰음이 보인다. 이색이 사냥을 기록한 시에서 “우림위의 못 호걸 騎士들이 모였을 제”라고 언급하고 있다.<sup>96)</sup> 말 타고 사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초에도 사냥에 나선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사냥한 기사 돌아오네”라는 언급도 보이고,<sup>97)</sup> 또 함경도 三水郡 鎮戎樓를 배경으로 한 權敏手의 시에서 “사냥꾼 기사들은 숲을 의지해 모아드는데”라는 구절도 보인다.<sup>98)</sup> 사냥꾼은 말 탄 기사인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말타기와 활쏘기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두 사냥에 탐닉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냥에 몰입한 이들은 대체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냥을 잘 한다는 것은 곧 기사 능력이 출중하다는 의미였다. 활쏘기와 말타기는 武藝이기 때문에 전투 훈련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냥에서 동물을 쫓아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행위는 곧 실제의 전

94) 활쏘기는 유교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에서의 활쏘기는 예법을 중시하고 심성을 수양하며 연장자를 존중하는 의미가 크지만, 사냥에서의 활쏘기는 과녁을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과 기민성을 중시한다.

95) 『新增東國輿地勝覽』권53, 平安道, 義州牧, 風俗.

96) 李穡, 『牧隱詩藁』권5, 「記打圍」.

97) 『新增東國輿地勝覽』권41, 黃海道, 黃州牧, 樓亭, 廣遠樓.

98) 『新增東國輿地勝覽』권49, 咸鏡道, 三水郡, 樓亭, 鎮戎樓.

투 상황에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능숙하게 하려면 상당 기간 그것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짧은 기간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활시위를 당기고 말을 달리면서 생활을 한 여진족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sup>99)</sup> 때문에 여진족은 사냥에도 탁월했다.

충렬왕과 함께 사냥에 나섰던 康允紹와 李之珪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국왕이 그들에게 자주 사냥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sup>100)</sup> 그들은 사냥에 필수적인 활쏘기와 말타기의 능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에서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騎射 능력이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경험이 필요했다. 이른바 실전 경험이 중요했다. 전투 훈련 뒤에 사냥 훈련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했다. 崔瑀가 전투 연습을 마친 군사에게 다시 사냥하는 법을 익히게 한 것은<sup>101)</sup> 그 때문이었다. 전투 훈련에서는 가상의 상황에서 무예를 익히는 것이고 그 무예를 잘 발휘하려면 사냥이란 실제 상황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사냥이 실전 연습하는 군사 훈련인 셈이었다. 사냥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전 능력이 함양되어, 실제의 전투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말타고 활쏘는 능력은 사냥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 능력은 군인으로서도 갖춰야 하는 소양이었다. 정도전은 “활 쏘고 말 달리는 기술을 연습하게 하면 강무하는 방법은 거의 구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sup>102)</sup> 평소

99) 『高麗史』권14, 世家14, 睿宗 10년 1월; 『高麗史節要』권8, 睿宗 10년 1월.

100) 『高麗史節要』권20, 忠烈王 5년 10월.

101) 『高麗史』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附 怡; 『高麗史節要』권15, 高宗 16년 11월.

102) 鄭道傳, 『三峯集』권7, 陣法, 正陣.

전쟁이 없을 때에 武事는 사냥을 통해서 강습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주장이 보인다.<sup>103)</sup> 사냥에서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은 군사 훈련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기사 능력을 전제로 한 사냥 행위와 실제 전투에서 발휘하는 능력이 서로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출중한 기사 능력을 전제로 실제의 사냥에 나선 구체적 인물은 여럿 찾을 수 있다. 申崇謙, 穆宗, 元卿, 韓希愈, 李宜風, 金倫, 權廉, 潘福海, 禡王, 君萬, 李成桂 등이 그들이다. 사냥에서 대단한 기사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왕건의 선계인 虎景은 활을 잘 쏘아 사냥을 일삼았다고 한다.<sup>104)</sup> 사냥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활을 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승겸은 대단한 활솜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찍이 태조 왕건을 따라 사냥하다가 三灘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그때 기러기 세 마리가 공중에 떠돌았는데 태조가 활과 화살, 안장 갖춘 말을 신승겸에게 주고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라고 했다. 신승겸이 그대로 맞혔다.<sup>105)</sup> 왕건의 지시대로 나르는 기러기의 날개를 맞춘 것이다. 대단한 활솜씨를 보유하고서 사냥에 나선 것이다.

사냥을 좋아했던 목종은 궁술과 기마를 잘 했다.<sup>106)</sup> 활을 잘 쏘고 말타기를 능숙하게 했기 때문에 사냥을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사냥을 좋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충렬왕대에 元傳의 아들인 원경은 好射御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鷹坊都監의 副使가 될 수 있었다.<sup>107)</sup>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해 응방도감

103) 鄭道傳, 『三峯集』 권14, 朝鮮經國典下, 政典, 總序.

104) 『高麗史』, 高麗世系.

10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平山都護府, 人物, 申崇謙.

106) 『高麗史』 권3, 世家3, 穆宗 12년 2월 己丑; 『高麗史節要』 권2, 穆宗 總序; 鄭道傳, 『三峯集』 권12, 經濟文鑑 別集下, 君道.

107) 『高麗史節要』 권22, 忠烈王 28년 6월.

의 관원이 된 것이다. 한희유는 매번 왕을 따라 사냥을 할 때면 활을 쏜 것이 명중했다.<sup>108)</sup> 이의풍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 했는데, 국왕 앞에 나타난 사슴을 말 타고 달려가 화살로 쏘았다.<sup>109)</sup> 말타고 달려가 화살로 쏘는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냥에서 솜씨를 발휘한 김륜도 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의 사신이 왔을 때 함께 사냥을 했는데, 그가 이리 저리 달리면서 활을 당기자 족족 맞혔다.<sup>110)</sup> 김륜이 탁월한 기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냥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권렴은 활 쏘고 말 달리기능에 능하여 사냥하는 데 정도가 아닌 詭遇의 법을 쓰지 않아도 얻는 것이 매우 많아서 武夫 들도 모두 그의 능란함을 칭찬했다.<sup>111)</sup> 말타기와 활쏘기 능력이 탁월해 사냥에서 편법을 쓰지 않아도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험에 직면해 있던 우왕을 위기에서 구한 반복해 역시 탁월한 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왕에게 달려든 멧돼지를 반복해가 말을 달려 곧장 앞으로 나와 화살 한 대로 멧돼지를 쏘아 죽였다.<sup>112)</sup> 대단한 기사 능력을 보유한 반복해가 말을 타고 달려가서 화살로 멧돼지를 죽인 것이다.

사냥을 즐겼던 우왕은 기사 능력이 범상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왕이 직접 활과 화살을 차고 팔에 매를 얹히고 사냥을 나갔음에서<sup>113)</sup> 알 수 있듯이 우왕은 활쏘기의 솜씨를 갖고 있었다. 또 말을 달리면서 민가의 닭과 개를 죽이는 일이 있었던 데서 볼 수 있듯이,<sup>114)</sup> 우왕은 말을 달릴

108) 『高麗史』권104, 列傳17, 韓希愈; 『高麗史節要』권23, 忠烈王 32년 7월.

109)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崔安道附 李宜風;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1년 9월.

110) 李齊賢, 『益齋亂藁』권7, 「有元高麗國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彥陽府院君 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 并序」.

111) 李穡, 『牧隱文藁』권16, 「重大匡玄福君權公墓誌銘 并序」.

112)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潘福海.

113)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6년 8월.

능력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광대인 군만은 공양왕 1년(1389)에 부친이 밤에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활과 화살을 지니고 산으로 들어갔다. 호랑이가 그 부친을 거의 다 먹고서 산모퉁이를 등지고 숨어 있다가 군만을 보더니 포효했는데, 군만이 화살로 단번에 호랑이를 죽여버렸다.<sup>115)</sup> 군만은 화살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대단한 기사 능력을 보유하고 사냥한 유명 인물은 이성계였다. 장단도 호부 화장산에서, 그가 사냥하다가 사슴을 쫓아가는 중, 절벽의 높이가 수십 척이라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 사슴이 미끄러져 내려가니 그의 말도 미끄러져 내려가 밑에까지 이르자 말이 엎어져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즉시 사슴을 쏘아 죽였다.<sup>116)</sup> 말을 타고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대단한 실력을 보였으며, 말이 일어나기도 전에 활을 당겨 사슴을 쏘 죽였다.

조선초에도 사냥에 능한 이들이 출중한 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보인다. 성현의 외삼촌은 항상 튼튼한 말을 타고 천 길이나 되는 언덕을 달려 내려가도 빠르기가 나는 새와 같았으며, 화살촉이 서로 연달아 이어져 보는 사람이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117)</sup> 양녕대군은 출중한 활솜씨를 보유해 새를 맞추는 실력을 발휘했다. 太宗이 궁중에 감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무척 사랑했는데, 새가 쪼아 먹으므로 태종이 활 잘 쓰는 사람을 구하자,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양녕대군을 추천했다. 태종이 곧 양녕대군에게 명하니, 번번이 맞추었다.<sup>118)</sup> 李陽生은 말 달리기와 활쏘기를 잘했으며, 매양 호랑이를 잡고 도적을 잡을 일이 있으면 조정에서는 이 사람

114)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6년 10월.

115) 『高麗史』권121, 列傳34, 孝友, 君萬.

116) 『新增東國輿地勝覽』권12, 京畿, 長湍都護府, 山川, 華藏山.

117) 成倪, 『慵齋叢話』권3, 我外舅安公.

118) 成倪, 『慵齋叢話』권4, 讓寧大君.

에게 위임했다.<sup>119)</sup>

탁월한 기사 능력을 보유하고 사냥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역으로 사냥을 좋아하거나 능숙하게 하는 이들은 기사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말타기는 보통의 백성이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배층의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말타기의 능력을 보유하고<sup>120)</sup> 사냥에 나섰을 것이다. 사냥을 즐기는 자, 사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말타기와 활쏘기 가운데 최소한 활쏘기의 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냥에서 나선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기사 능력을 추측하고자 한다. 崔婁伯의 부친 崔尙翥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했는데,<sup>121)</sup> 최상저가 사냥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냥에 나설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불의에 호환을 입었지만 최상저가 기사 능력을 보유한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종 46년(1259) 여러 공신이 강 밖에서 사냥을 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sup>122)</sup> 공신이 기사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사냥이 가능했다.

고려시기 사냥에 몰두했던 양수척은 탁월한 사냥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양수척은 太祖가 百濟를 공격할 때 제압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본래 貫籍과 부역이 없었으며, 水草가 자라는 곳을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이 옮겨 다니면서 사냥을 일삼고 柳器를 만들었으며, 판매를 생업으로 삼았다.<sup>123)</sup> 사냥을 일삼았던 양수척은 기사 능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활쏘기에서는 탁월했을 것이다.

119) 成倪, 『慵齋叢話』 권4, 雞城君 李陽生.

120) 이병희, 「高麗時期 僧侶와 말[馬]」, 『韓國史論』 41·42합집, 서울대 국사학과, 1999 참조.

121) 『高麗史』 권121, 列傳34, 孝友, 崔婁伯.

122)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년 10월.

123)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高麗史節要』 권14, 高宗 3년 9월.

원종대 횡천현의 백성 屎加大가 아들 8명 및 사위 1명과 함께 산골짜기에 거주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동물을 사냥하여 먹고살았다.<sup>124)</sup> 시가대 무리들은 사냥을 함으로써 생활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탁월한 활쏘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趙瑋는 송사를 처리하고 난 뒤의 여가에는 술을 마시고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sup>125)</sup> 사냥을 하는 것을 취미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사 능력이 전제된 일이겠다. 侍衛護軍 河元瑞는 경원의 士族인데, 일찍이 사냥을 나왔다가 乾洞禪寺에 이르러 무너진 담장과 부서진 주춧돌을 보고 황폐한 사원을 다시 일으켰다.<sup>126)</sup> 그가 사냥을 나왔다는 것은 사냥 능력, 곧 기사 능력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慶復興이 일찍이 최영과 함께 私兵을 거느리고 東郊에서 크게 사냥했다.<sup>127)</sup> 공민왕대에 최영이 高峯縣에서 사냥하니 신돈이 왕에게 참소한 일이 있다.<sup>128)</sup> 경북흥이나 최영은 사냥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말타기와 활쏘기였다.

곳곳에서 사냥에 몰두한 사냥꾼이 존재한 것을 볼 수 있다. 達空 首座가 언제나 동굴 속에서 살았는데 사냥꾼 두어 사람이 그 곁에다 막사를 치므로, 그들이 보고서 사람들에게 말할까 하여, 곧 나갔다가 와서 그들과 함께 자며, 마치 지나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하다가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sup>129)</sup> 사냥을 위해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기사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기마 능력은 아닐지라도 활쏘는 솜씨

124) 『高麗史』권26, 世家26, 元宗 5년 5월; 『高麗史節要』권18, 元宗 5년 5월.

125) 李穀, 『稼亭集』권12, 「高麗國重大匡僉議贊成事上護軍平壤君趙公墓誌」;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출판부, 2012, 「趙瑋墓誌銘(1349년)」.

126) 李齊賢, 『益齋亂藁』권6, 「重修乾洞禪寺記」.

127) 『高麗史』권111, 列傳24, 慶復興.

128) 『高麗史』권113, 列傳26, 崔瑩.

129) 權近, 『陽村集』권17, 「達空首座問答法語序」.



는 출중했을 것이다.

사냥에 탐닉한 지방관을 볼 수 있는데,<sup>130)</sup> 기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 고려말 수령들이 사냥에 나서는 일이 많아 이를 금지하자는 趙浚의 주장이 있었다.<sup>131)</sup> 사냥에 몰두하는 수령들은 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라도 무장현의 풍속은 고기잡이와 사냥을 숭상한다고 한다.<sup>132)</sup> 무장 사람들이 사냥을 즐겨했고, 사냥에 능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냥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사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상당한 수준의 실력은 오랜 기간의 연마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다. 기사 능력이 있더라도 사냥이란 실제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여러 차례 사냥을 직접 해 보아야 했다. 사냥에 종사한 많은 이들은 적어도 활숨씨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능력이 전제되어야 긴급 상황에 대처하면서 성과를 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사냥을 능숙하게 하려면 기민한 대처능력도 필요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의 용감함도 갖추어야 했다.

#### IV. 勇敢·殺生과 사냥

사냥하는 이들은 기사 능력을 갖추어 아울러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겁이 많으면 동물이 출몰할 때 주춤하거나 피하게 되게 된다. 육식동

130) 『高麗史』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高麗史』권130, 列傳43, 叛逆4, 崔坦; 『高麗史節要』권14, 神宗 2년 8월; 『高麗史節要』권18, 元宗 10년 10월.

131) 『高麗史』권118, 列傳31, 趙浚.

132) 『新增東國輿地勝覽』권36, 全羅道, 茂長縣, 風俗.

물인 맹수를 조우하더라도 겁을 먹지 않고 대결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했다. 용감하다고 모두 사냥을 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능한 사냥꾼이 되려면 반드시 담력을 갖추어야 했다. 용감한 기질을 보유해야 사냥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사냥할 때 위험에 용감하게 대처하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다. 사냥을 즐겨하는 이, 사냥에서 유능함을 발휘하는 이들은 대부분 용감한 기질을 갖추고 있었다. 용감함을 발휘하면서 사냥한 대표적인 인물로 李珣, 李宜風, 韓希愈, 潘福海, 李成桂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기사 능력도 출중했다. 여기서는 용감한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숙종이 牛陀川 들판에 행차했다가 호랑이가 뛰어나오자 때려죽인 牽鞭校尉 宋宗紹는<sup>133)</sup> 매우 용감한 군인이었을 것이다. 용감함을 갖추고 있어서 돌출한 호랑이를 때려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閔瑛이란 인물은 사람됨이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사냥하는 일과 말을 달려 擊毬하는 것을 좋아했다.<sup>134)</sup>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것과 사냥을 좋아함은 상관 관계가 높았을 것이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병은 용맹함을 좋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으며, 관직이 將軍에 이르렀다. 항상 매를 길러 사냥하기를 일삼았다.<sup>135)</sup> 용감한 사람으로서 사냥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냥에 몰두하는 이들은 대체로 용감한 사람이었다.

원나라 출신 이의풍은 사슴이 국왕 앞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용감하고 기민하게 나서서 활을 쏘서 사슴을 넘어뜨렸다.<sup>136)</sup> 사슴의 돌출로 인

133) 『高麗史』권11, 世家11, 肅宗 7년 11월 壬午.

134)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 出版部, 2012, 「閔瑛墓誌銘(1152년)」.

135)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李貞附 李珣;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 15년 8월.

해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용감함을 발휘해 국왕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충혜왕은 豪俠하고 말타고 활쏘는 것을 좋아했다.<sup>137)</sup> 그는 사냥에도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sup>138)</sup> 호협함과 사냥의 상관 관계를 볼 수 있다. 압전한 유형의 사람은 사냥을 즐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文弱한 이들도 사냥을 좋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희유는 嘉州吏 출신이었는데 膽略이 있었다. 일찍이 고향 사람들과 함께 火獵을 행했는데 말을 채찍질해 불 가운데로 출입함이 나는 듯했다.<sup>139)</sup> 용감함을 가지고 불 사냥 시에 불속을 넘나들면서 동물을 포획한 것이다.

반복해는 매우 용감함을 보였다. 우왕이 사냥하다 멧돼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얼굴빛이 변하여 어쩔 줄 몰랐다. 이때 密直副使 반복해가 말을 달려 곧장 앞으로 나아가 돼지를 제압해 우왕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sup>140)</sup> 멧돼지의 공격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었는데 그가 용감하게 나서서 멧돼지를 죽임으로써 국왕을 보호했다.

가장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를 잡는 일은 대단한 용감성을 전제로 했다. 태조 1년(918) 호랑이가 都城의 黑倉 담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활을 쏘

136)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崔安道附 李宜風;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1년 9월.

137)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總序.

138)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1년 1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1년 2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1년 3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1년 4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1년 10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후2년 8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후2년 10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후2년 12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후3년 2월;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 후4년 6월.

139) 『高麗史』권104, 列傳17, 韓希愈.

140)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潘福海.

아 잡았다.<sup>141)</sup> 쏘아 잡은 이는 대단히 용감했을 것이다. 호랑이 사냥 내지 퇴치에 나서는 이는 지극히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호랑이를 사살한 이성계의 용감성은 말할 나위없는 것이었다. 우왕 1년(1375)과 우왕 4년에 이성계가 호랑이를 잡은 일이 있다.<sup>142)</sup> 호랑이를 화살로 죽인 이성계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조선초 河敬復은 사냥하다 맹호를 만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조금씩 물웅덩이로 호랑이를 밀어 넣어 물을 마시게 했으며 이에 힘이 빠진 호랑이를 나무와 돌을 가지고 때려죽였다.<sup>143)</sup> 보통의 담력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사냥을 잘 하려면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용감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이나 야생동물의 출몰에 대처할 수 없었다. 때문에 유능한 사냥꾼은 용감함을 갖추고 있었다. 위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했다. 그런 용감함과 기민함을 갖추지 않으면 유능한 사냥꾼이 될 수 없었다. 豪俠·豪放으로 표현되는 성품 소지자들이 사냥을 즐길 수 있었다.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나 사냥에서 유능함을 발휘하는 사람은 대체로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태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동물을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아야 했다. 나아가 잔인한 측면도 있어야 했다. 사냥을 즐겼던 이병, 충렬왕, 충혜왕, 우왕에게서 그런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이란 인물은 항상 매를 길러 사냥하기를 일삼았는데, 참새 같은 새를 생포하여 털을 제거하고 입으로 씹어 매를 먹이거나 또는 생닭을 쪄 개서 그 반을 남겨 매에게 먹였다.<sup>144)</sup> 살아 있는 새와 닭을 매우 잔인하게

141) 『高麗史』권54, 志8, 五行2, 金, 毛虫之孽, 太祖 1년 8월 戊辰.

142) 『高麗史』권133, 列傳46, 辛禰 1년 10월; 『高麗史』권133, 列傳46, 辛禰 4년 8월.

143) 成侃, 『慵齋叢話』권3, 河敬復.

대우함을 볼 수 있다. 동물에 대해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냥을 즐긴 충렬왕도 매에게 먹이를 줄 때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충렬왕은 닭이나 고니의 배와 등에 있는 털을 산 채로 뽑은 후 놓아준 다음 새매를 풀어 쪼아 먹게 하게 했다.<sup>145)</sup> 충혜왕은 밤에 承信의 집에 행차하여 술자리를 열고 매우 즐거워하다가 닭이 울자, 칼을 뽑아들어 닭의 머리를 베어버렸다.<sup>146)</sup>

사냥에 탐닉했던 우왕은 정무를 보지 않고 날마다 군소배들과 함께 민가에서 말을 달리면서 닭과 개를 때려 죽였다.<sup>147)</sup> 우왕은 또 타인의 말을 빼앗아 타고 나가 놀면서 쇠몽둥이로 만나는 개마다 쳐서 죽였는데 하루에 20여 마리에 이르기기도 했다.<sup>148)</sup> 민가의 닭과 개를 때려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었다. 살생에 대해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崔瑩이 매와 사냥개를 바쳐 우왕을 사냥으로 이끌고 또 형벌과 살육을 가르쳐 위세와 잔악함을 즐기게 했다는 표현이 보인다.<sup>149)</sup> 사냥과 잔악은 함께 가는 것이다. 사냥을 즐기는 이들은 잔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냥은 야생동물을 잡는 것이었으므로, 살생을 꺼리지 않아야 했다. 야생동물의 살생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져서는 사냥할 수 없었다. 야생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서는 곤란했다. 때로는 잔인함도 발휘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반해 유약한 사람, 겁많은 사람은 사냥에 적합하지 않았다. 살생을 꺼리는 사람 역시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다. 好佛的인 사람은 대개 살생을 꺼려했으므로 사냥에 적극적이기 어

144)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李貞附 李珣;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 15년 8월.

145)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1, 李汾禧附 李樞.

146) 『高麗史』권36, 世家36, 忠惠王 후4년 7월 癸未.

147)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6년 10월.

148)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7년 6월.

149) 『高麗史』권137, 列傳50, 辛昌 즉위년 6월 辛亥.

려웠다.<sup>150)</sup>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던 군주로 충선왕과 공민왕을 들 수 있고, 신료로서는 廉承益, 張舜龍, 韓康, 辛晫을 찾을 수 있다.

충선왕은 세자 시절에 父王인 충렬왕이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부왕을 사냥으로 이끄는 朴義를 비난했다. 相師 天一이 어린 충선왕을 보고 인자한 눈을 가져 매와 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151)</sup> 과연 충선왕은 왕위에 올라 사냥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사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충선왕 1년 매 사냥과 관련된 응방을 혁파했으며,<sup>152)</sup> 2년에 이제부터 3년을 기한으로 사냥을 금지했다.<sup>153)</sup> 3년 宰樞 이하 관원이 매 사냥하는 것을 금지했다.<sup>154)</sup> 충선왕 본인이 매와 개를 놓아 보내고 놀러 나가 사냥하는 것을 끊었다고 자부했다.<sup>155)</sup>

공민왕 역시 성품이 자애로워 동물을 차마 해치지 못했다. 공민왕 5년 서울과 지방에서 사냥하는 것을 금지했다.<sup>156)</sup> 12년 敎書에 이르기를, “근래에 각처의 防禦軍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하는 것이 때가 없어서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짐승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고 있어서 仁政에 어그러지는 것이 있으니, 명령을 내리건대 여러 道의 存撫使와 按廉使는 그런 행위는 통렬히 금지시키라.”라고 했다.<sup>157)</sup> 각 처의 방어군관들이 무시로 사냥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50) 불교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생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생업의 하나였으므로 사냥은 불가피했다. 식료를 조달하고 중요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냥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사냥에 專業的으로 종사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楊水尺이 그러했다.

151) 『高麗史』권33, 世家33, 忠宣王 總序.

152) 『高麗史節要』권23, 忠宣王 1년 4월.

153) 『高麗史』권33, 世家33, 忠宣王 2년 12월 戊申.

154) 『高麗史』권84, 志38, 刑法1, 職制, 忠宣王 3년 6월.

155) 『高麗史』권34, 世家34, 忠肅王 1년 1월 甲辰.

156) 『高麗史』권85, 志39, 刑法2, 禁令, 恭愍王 5년 12월.

157) 『高麗史』권84, 志38, 刑法1, 職制, 恭愍王 12년 5월.

또 공민왕 15년 遼陽의 平章 高家奴가 새매[鷓]를 바쳤는데, 왕이 풀어주었다. 사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또 일찍이 개가 다급하게 우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복통일 것이다.”라 하고 궁중의 약을 내어오라고 명령했는데, 약이 오지 않자 왕이 곁에 서서 기다렸다. 공민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 거의 사냥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다.<sup>158)</sup> 동물을 해치지 못하는 자애로움을 가진 이들은 사냥을 즐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21년 원구단 및 여러 祭壇·山陵·鎮山·裨補에서 사냥하는 것과 매의 사육을 금지했다.<sup>159)</sup> 공민왕은 사냥을 금지하고 매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복통을 앓는 개에 대해서도 연민의 정을 갖고 있었다.

好佛·信佛의 성향이 강한 이들도 사냥에 소극적이었다. 살생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염승익은 불교에 대한 신심이 매우 도타웠다.<sup>160)</sup> 충렬왕이 자주 사냥을 나갔는데, 염승익이 불교의 법을 가지고 권하자 충렬왕이 사냥 나가는 것이 조금 뜸해졌다.<sup>161)</sup> 불교를 독신하는 염승익이 충렬왕의 사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장순룡도 염승익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忠烈王이 馬堤山으로 사냥을 갈 때 壽康宮에 道場을 설치하고 대거 승려들을 모아들이자 장순룡이 말하기를, “왕께서 부처를 받들고 飯僧하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사냥하니 어떠한 공덕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sup>162)</sup> 부처를 받들고 반승을 해도 사냥을 한다면 공덕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불교와 사냥은 서로 대립적

158) 『高麗史』권41, 世家41, 恭愍王 15년 8월 己卯; 『高麗史節要』권28, 恭愍王 15년 8월.

159) 『高麗史』권85, 志39, 刑法2, 禁令, 恭愍王 21년 11월.

160) 김종민, 「김지급자 『百千印陀羅尼經四經合部』 사경을 통해 본 고려시대 왕실발원 사경 - 충렬왕대의 국왕발원사경을 중심으로 -」, 『불교미술사학』 28, 불교미술사학회, 2019 참조.

161)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1, 廉承益; 『高麗史節要』권20, 忠烈王 9년 6월.

162)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1, 張舜龍.

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불교는 살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강은 몹시 호불적 인물이었다.<sup>163)</sup> 충렬왕이 정치의 자문을 구하자, 한강은 佛法을 인용해 사냥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즉 “동물을 놓아주어 생명을 살린다면 가히 천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니, 청하 건대 이제부터 도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냥하는 즐거움을 멈추며 맛 좋은 고기의 진상을 즐기 바란다.”라고 했다.<sup>164)</sup> 동물을 놓아주어 생명을 살리면 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냥의 즐거움을 멈춰 살생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불교계의 대표인 國師 역시 그러했다. 충렬왕 22년(1296) 왕이 西郊에서 사냥을 했을 때, 國師僧이 서한을 올려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환갑의 나이가 되었으니 의당 조심하면서 덕을 닦아야 하며, 사냥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sup>165)</sup> 불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국사가 국왕이 사냥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살생은 불교 계율에서 엄히 금했으므로 국사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승려 출신 辛旽 역시 사냥개를 무서워하고 활쓰기와 사냥을 싫어했다.<sup>166)</sup>

보각국사 혼수의 부친이 龍州의 수령으로 있을 때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달아나다가 우뚝 서서 두 번씩이나 뒤돌아보는 것을 보고 활을 당기려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돌아보니, 사슴 새끼가 그 어미를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짐승이 새끼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무

163) 강혜진, 「高麗後期 淸州韓氏家 人物의 政治活動」, 『高麗時期 家門 研究』, 한국교원대 출판문화원, 2019 참조.

164)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 22년 2월; 『新增東國輿地勝覽』권15, 忠淸道, 淸州牧, 人物, 韓康.

165)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 22년 2월.

166) 『高麗史』권112, 列傳25, 李達表; 『高麗史』권132, 列傳45, 叛逆6, 辛旽; 『高麗史節要』권29, 恭愍王 20년 7월.



엇이 다르랴.”하고 탄식하면서 곧 사냥을 그만두었다.<sup>167)</sup> 자비로운 마음으로는 사냥을 하기 힘든 것이었다.

사냥은 누구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겁이 많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 자비심이 두터운 사람은 사냥을 즐기기 힘들었다. 살생에 주저함이 없고, 기사 능력을 갖추어야 사냥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질과 능력은 상무적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 結語

고려시기 사냥은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활동이었다. 사냥의 보편화는 고려 사회가 상무적인 성향을 질게 갖도록 했다. 騎射 능력과 용감한 기질을 갖춘 상무적 성향의 사람들이 사냥에서 크게 활약했다. 이들은 사냥만이 아니라 사회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냥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사냥의 방법으로 가장 고전적인 것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포유류나 조류 등 대부분의 동물은 이 도구를 사용해 포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 사냥 역시 성행했다. 꿩과 토끼, 여우 등을 사냥할 때 매 사냥을 활용했는데 대개 개를 데리고 함께 했다. 그물을 설치하거나 함정을 파서 사냥하기도 했다. 국왕이나 군 지휘관, 수령 등은 다수의 사냥꾼을 동원한 몰이 사냥을 했다. 눈이 내렸을 때를 활용하면 쉽게 동물을 잡을 수 있었다. 사냥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달아나는 야생동물을 뒤쫓는 과정에서 온갖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며, 큰 사고

167) 權近, 『陽村集』권37,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 并序」.

를 당하는 수도 많았다. 동물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기도 했으며, 落馬의 사고를 겪는 수가 흔했다. 부주의로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물의 돌출로 낙마하는 수도 있었다.

위험한 사냥을 능숙하게 잘 하려면 일정한 기술 능력을 소지해야 했다. 그것은 활쏘기와 말타기로 집약되었다. 활쏘기와 말타기는 꽤 긴 기간의 수련을 전제로 했다. 이런 능력을 소지한 이들이 사냥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신승점·목종·원경·한희유·이의풍·김륜·권렴·우왕·반복해·이성계 등은 모두 활쏘기와 말타기를 능숙하게 하면서 사냥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활쏘기와 말타기 능력을 언급함이 없이 사냥에 종사한 이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들 역시 그런 능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말은 지배층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양자에 모두 능한 이는 지배층일 수밖에 없었다. 일반 민인이 사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주로 활쏘기를 능숙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활쏘기와 말타기라는 무예는 군인의 전투 능력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었다. 사냥에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능숙하게 하는 이는 전쟁에서도 유능함을 발휘할 가능성이 컸다.

사냥은 기사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은 위험한 일이고, 또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어서 상당한 용감성을 갖춰야 했다. 그리고 동물을 주저없이 살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냥을 즐긴 이들은 대부분 용감했다. 특히 호랑이를 퇴치한 이는 엄청난 용감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성계라든지 한경복이 그러했다. 반면에 마음이 여리거나 담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사냥을 즐기지 않았다. 호불·신불의 성향이 강한 사람 역시 사냥에 비판적이었다. 국왕으로는 충선왕과 공민왕이 사냥을 멀리했으며, 염승익·장순룡·한강·신돈 등이 사냥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려시기 사냥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무적 분위기가 사

회 구성원을 지배하고 있었다.<sup>168)</sup> 성리학 수용 이후 상무적 분위기는 점차 퇴색해 갔다. 武藝보다는 文藝 혹은 禮治를 중시하게 되면서, 지배층에서 사냥은 점차 멀어져갔다. 사냥문화는 특히 15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퇴조했는데,<sup>169)</sup> 이는 상무적인 사회 성향이 퇴색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1.11.07. 투고 / 2021.12.02. 심사완료 / 2021.12.15. 게재확정)

---

168) 이 글은 고려 사회 전반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시기별 변화 양상을 언급하지 못했다. 상무적 분위기는 고려 전체 시기에 걸쳐 공통이었지만, 무인집권기와 대몽항쟁기, 원 간섭기에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사회의 상무적 성향은 사냥에 의해 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외부 세계와의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경우 상무적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고려 이전시기에는 사냥이 생업으로서 갖는 비중이 더욱 컸을 것이므로 사냥문화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상무적 성향도 고려보다 더욱 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9) 이병희, 「조선전기 사냥의 전개와 위축」, 『사회과학연구』 21,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2020 참조.

## [부록] 자료에서 '騎射(射御)' 능력이 직접 표현된 인물

순번	인물명	내용	전거
1	郭興	射御琴瑟靡所不治	『高麗史』권97, 列傳10, 郭尙附 興; 『高麗史節要』권9, 仁宗 8년 4월
2	奇卓誠	善射御	『高麗史』권, 列傳13, 奇卓誠; 『高麗史節要』권12, 明宗 9년 2월
3	金正純	善射御	『高麗史』권98, 列傳11, 金正純; 『高麗史節要』권10, 仁宗 23년 8월
4	金行波	善射御	『高麗史』권88, 列傳1, 后妃, 小西院夫人金氏
5	穆宗	善射御	『高麗史』권3, 世家3, 穆宗 12년 2월 己丑; 『高麗史節要』권2, 穆宗 總序
6	朴仁碩	善騎射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2012 「朴仁碩墓誌銘(1212년)」
7	徐恭	善騎射	『高麗史』권94, 列傳7, 徐熙附 恭; 『高麗史節要』권12, 明宗 1년 7월
8	王綽	善騎射	『高麗史』권90, 列傳3, 宗室, 顯宗王子 平壤公王基, 永寧公王綽
9	柳實	善騎射	『高麗史』권112, 列傳25, 柳淑附 實
10	尹可觀	善騎射	『高麗史』권113, 列傳26, 尹可觀
11	元卿	好射御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元卿; 『高麗史節要』권22, 忠烈王 28년 6월
12	李珽	善騎射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李貞附 李珽;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 16년 8월
13	李孚	善射御	『高麗史』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高麗史節要』권15, 高宗 4년 3월
14	李宜風	善射御	『高麗史』권124, 列傳37, 嬖幸2, 崔安道附 李宜風
15	李子晟	善射御	『高麗史節要』권17, 高宗 38년 윤10월
16	李子春	稍長善騎射	李穡, 『牧隱文藁』권15, 「高麗國贈純誠勁節同德輔祚翊贊功臣 … 榮祿大夫判將作監事李公神道碑銘 并序」

17	張侶	能射御	『高麗史』권134, 列傳47, 辛禡 8년 1월; 『高麗史節要』권31, 辛禡 8년 1월
18	鄭沈	善騎射	鄭道傳, 『三峯集』권4, 「鄭沈傳」
19	趙延壽	尤工書 畫射御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2012 「趙延壽 墓誌銘(1325년)」
20	澄曉大師父 先懂	藝高弓馬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 1994 「寧越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文」
21	蔡松年	衆藝備身 尤善琴碁 射御書也	河千旦, 「除宰臣任景肅蔡松年金敞趙敦樞密院 使崔璘麻制」 『東文選』 권26
22	崔弘宰	善射御	『高麗史』권125, 列傳38, 姦臣1, 崔弘宰; 『高麗史節要』권9, 仁宗 2년 2월
23	忠惠王	好騎射	『高麗史節要』권25, 忠惠王總序
24	韓希愈	善騎射	『高麗史節要』권104, 列傳17, 韓希愈; 『高麗史節要』권23, 忠烈王 32년 7월

[Abstract]

## **The Methods and Martial Nature of Hunting in Goryeo**

Lee, Byung-hee

This study set out to extract the martial tendency in the hunting culture of Goryeo. Hunting was an act of capturing wild animals in various ways. The most classical type of hunting used the bow and arrow, which were used to capture most wild animals including mammals and birds. They would also install a net and dig a pit to trap animals. Hawking was hugely prevalent, as well. It was very dangerous and hard to capture violent and quick animals in hunting, and many had an accident in the hunting process. The most common accident was to be thrown from a horse.

One needed to be armed with superb archery and riding skills to be adept at dangerous hunting. One also needed considerable bravery and agility and had to be ready to kill animals without any hesitation. Those who were capable of hunting were able to demonstrate their skills in actual battle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ad a tender heart, weak nerves, and lots of mercy did not enjoy hunting. Those who had a tendency of being friendly to Buddhism or believing in Buddha were critical of hunting.

In Goryeo, hunting was a universal activity, which means that the martial tendency was found both in the upper and lower class. Goryeo was able to fight well in many wars in its own way because it was a

martial society. The martial atmosphere gradually deteriorated after the acceptance of Neo-Confucianism. As literature and art or governance by courtesy gained more and more importance than martial arts, hunting gradually disappeared in the culture of the ruling class.

□ Keyword

Martial Nature, Hunting, Wild Animals, Bow and Arrow, Hawking, Archery, Riding Skills, Bravery, Buddhism, Martial Society

[참고문헌]

1. 사료

『稼亭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及菴詩集』,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牧隱文藁』, 『牧隱詩藁』, 『四佳文集』, 『四佳詩集』, 『三峯集』, 『惺所覆瓿藁』, 『續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集』, 『櫟翁稗說』, 『慵齋叢話』, 『圃隱集』.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 出版部, 2012.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朝鮮篇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9.

2. 단행본

김광언, 『韓·日·東시베리아의 사냥』, 민속원, 2007.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

3. 논문

강혜진, 「高麗後期 淸州韓氏家 人物의 政治活動」, 『高麗時期 家門 研究』, 한국교원대 출판문화원, 2019.

김종민, 「감지금자 『百千印陀羅尼經四經合部』 사경을 통해 본 고려시대 왕실발원 사경 - 충렬왕대의 국왕발원사경을 중심으로 -」, 『불교미술사학』 28, 불교미술사학회, 2019.

이병희, 「高麗時期 승려와 말[馬]」, 『韓國史論』 41·42합집, 서울대 국사학과, 1999.

이병희, 「조선전기 사냥의 전개와 위축」, 『사회과학연구』 21,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2020.

이병희, 「고려시기 사냥의 성행(盛行)과 대책」, 『한국중세사연구』 67, 한국중세사학회, 2021.